

#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또 잡음...난항 예고

### 나주시, 용역 중간 결과 보고회 반발 공청회 취소 광주시·전남도·나주시 이달 27일 개최기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간 합의했던 연구용역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기금 사업 선정 공청회'가 연

기됐다. 공청회 주최는 지난 2019년 11월 기금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이며, 주관은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이다. 이날 공청회는 발전기금 조성 연구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진행한 기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기금 규모와 사용처, 관리 주체 등 용역 연구결과가 일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나주시가 공청회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연구원은 전남 광주시에 공청회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청회 연기 배경에는 용역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나주시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이유다. 용역 지표에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 등

이 포함되면서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안을 벗어난 용역이라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용역결과를 놓고 또다시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금조성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달 나주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번 광주 공청회가 무산돼 자연스럽게 최종 용역결과 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 지자체는 다시 협의해 이달 27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 재단 설

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할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이준석(왼쪽)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여수시를 방문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김영록 전남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지원 요청

### 김영록 지사, 이준석 대표에 건의 이 대표 "응어리 풀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30일 여수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순사건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 성과를 내 응어리를 풀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 인근 여순사건 위령탑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73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다 지난달 29일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이 대표와 함께 참배했다. 김 지사는 이준석 대표에게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사를 표하고, "특별법 통과도 뜻 깊지만, 앞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바라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에게 ▲'여수·순천 10·19사

건' 국가 기념일 지정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역자 원시설계' 과세 확대 등 5건의 당면 현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족과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순천 전통시장인 '웃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상인들의 손을 잡고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인사를 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상인과 시민들 모두 "아무지다"라거나 "응원한다" 등의 말을 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호남이 저해를 받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호남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공무원 시험 합격자 여성이 60%

### 780명 모집에 468명 차지

올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처음으로 60%를 차지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2021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780명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2019년(847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다. 738명 모집에 9265명이 지원해 평균 1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렬별로는 ▲행정 333명 ▲사회복지 116명 ▲시설·방재안전 79명 ▲간호·보건·의료기술 70명 ▲공업 44명 ▲환경·녹지 35명 ▲기타 10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12명이었으며, 여성이 468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0.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행정직은 여성 합격비율이 60.1%였으며, 사회복지·간호·보건직렬의 경우 78.5%에 달했다. 여성 합격 비율은 ▲2016년 51.5% ▲2017년 55.4% ▲2018년 58.1% ▲2019년 59.6% ▲2020년 59.4%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5명(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70명(21.8%), 40대 이상 35명(4.5%) 등이었다. 최고령은 55세(일반행정), 최연소는 19세(일반행정)였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시장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 하려고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 절차를 계획보다 1개월 이상 단축했다"며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전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융용지원을 한다. 지원 분야는 담보 보증과 저리 융자 등 2종류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한다. 담보 보증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5000만원 초과 시 90%를 해준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신용점수 및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기간의 경우 운전자금 4년, 시설자금 8년까지다.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1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85억 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한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2.25% 내외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우대기업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 지원 한도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보전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에 박남언 국장 승진 임용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민안전실장(2급)에 박남언 교통건설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박남언 전 시민안전실장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박남언 신임 실장은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공석이 된 교통건설국장 등 인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